

안전공업(주)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,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3.30.(월) 한국일보, “유증기 위험 3차례나 적발에도...후속 조치는 자율에”

- 노동부, '23년 대전 안전공업 점검 당시 바닥 절삭유 등 시정 권고했지만 이행 여부 직접 확인·입건 없이 시정 명령 실시
- 23년 이후 3년간 안전공업을 산재 관련 집중 관리 대상인 초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했지만 정작 현장 점검에 나서지 않음

2. 설명내용

□ 금번 사고가 발생한 안전공업(주) 본사(대전 대덕구 문평서로)는 특별감독 대상에 해당*하여 사고 수습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*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·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(근로감독관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제9조)

□ 이에 앞서, 유사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안전공업(주) 대화공장(대전 대덕구 대화로)에 대해서도,

○ '26.3.25.(수)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·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명을 투입, 긴급 감독에 착수하였으며,

－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, 위험요인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임.

○ 또한, 향후 실시할 안전공업(주)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과정에서 대화공장을 포함한 전사적인 안전 조치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.

□ 우리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

○ 작년 10월부터 특별감독이 아닌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모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.

□ 또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및 감독 물량 확대 등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,

* △감독관 수: '25년 1,445명 → '26년 2,095명
△감독물량: '25년 2만4천개 → '26년 5만개

○ 감독 결과, 위험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,
- 금년 감독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, 금년부터는 중대재해 위험요인 다수 위반 또는 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종료 후 재차 확인감독을 실시할 계획임.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송훈 (044-202-8914)

